

믿음의 선포와 기도

김광년_신내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교가정생활협회 중경회장



교회를 건축하는 목회자의 고민 중 하나는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어떻게 하면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짐이 되지 않고 감사로 드리는 축제가 될 수 있

을까? 어떻게 하면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기도회를 할 수 있을까? 무슨 내용을 담아 기도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하였다.

“3다”의 믿음을 선포하고 일치를 위해 간구하다

건축이 시작되기 전 우리교회는 ‘3다’의 신앙을 공포하였다. 즉 “한다/된다/좋다”의 믿음으로 도전하자고 선포하였고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다, 된다, 좋다의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또한 기도순서를 맡은 이들은 “일치된 순종과 적극적인 믿음으로 교회건축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라고 반복하여 간구하였다. 같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자 성령께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다.

건축을 위한 특별기도회

우리는 매월 셋째 금요일에 드리는 심야기도회를 ‘건축을 위한 특별기도회’로 성별하였고 매 회차를 기록하여 모이기로 하였다. 그래서 평상시 심야기도회에 못 나오시는 성도들과 어린이 학생 청년들도 셋째주 기도회에는 적극 참여하도록 강권하였다. 그리하여 매월

한차례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기도회를 열었고 장로를 비롯한 교회의 어른들은 기도회에 참여한 젊은 세대에게 푸짐한 야식을 제공하였다. 건축을 위한 특별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담임목사는 설교를 통해 건축에 대한 모든 일정과 재정상태, 건축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기도하였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 기도회에 참석하면 건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된다고 하였다.

2016년 1월 제1차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감동과 눈물로 시작하였다. 아직 재개발 협상이 진행 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건축 스케줄조차 잡을 수 없는 시점이었다. 그런데 담임목사인 나는 “우리가 제40차 기도회를 새 성전에 입당하여 드린 후 특별기도회를 종료하도록 기도합시다” 라며 믿음으로 선포하였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정말 새 예배당에서 제40차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회를 드림으로 특별기도회를 마감하였다.

건축 안내 책자(브로셔:brochure) 제작

아파트를 청약하면 세련된 안내 책자를 보고 실물을 그려볼 수 있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으로 매우 세련된 브로셔를 제작하였다. 그 안에 담임목사와 건축위원장의 인사말, 교회 건축의 디자인 컨셉과, 총별로 각 공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그 공간을 위한 공동의 기도문을 적어 두었다. 교인들은 이 책자를 보고 평생 보관하고 싶은 책자라 하였고, 설계도를 잘 못 보는 사람들도 모든 공간이 그려진다고 좋아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 책자를 넘기며 같은 기도를 드렸다.

자원하는 철야기도의 용사들

공사가 시작되자 교회 권사님 중 몇몇 분이 자발적으로 매일 교회 기도실에서 철야하며 기도하였다. 그 기도자들을 축복하며 격려했더니 선교회가 순서를 담당하여 매일 기도하는 모임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담임목사인 나는 구 예배당 강단 위에 침구를 펴고 많은 날을 기도하였다. 그 자발적인 기도로 교우들은 단단하게 결속하였고, 기도의 시간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기도의 열매로 교회는 정말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교회 건축을 마치게 되었다. 김광년